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NAP와 차별금지법, 순교적 각오로 거부·저항할 것을 천명한다”

한국교회연합단체 성명서 발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NAP)이 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잘못된 NAP와 차별금지법에 대해 순교적 각오로 거부와 강력히 저항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NAP)이 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인권을 내세우는 정부가 대다수 국민의 인권을 억압 침해하고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국가의 힘을 동원함으로써 앞으로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NAP의 핵심은 한법에 기초한 양성평등을 무력화하고 성평등, 즉 동성애를 옹호하며 동

성애자들을 정부가 나서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건전한 성윤리와 가치를 정부가 나서서 송두리째 찢어 버리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으며, 장차 동성애와 동성혼까지 합법화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우리는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이라는 이름하에 저질러지는 문란한 성행위까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옹호하는 것에 대해 일체 거부한다. 이는 한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기 때문이다.

이 나라가 성소수자들이 세운 나라인가. 우리는 정부가 동성애자들을 혐오하지 않는

것과 옹호하는 것의 차이를 혼동하고 있음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소수를 감싸기 위해 대다수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NAP와 차별금지 기본법 제정을 반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 정부가 이를 시행할 경우 한국교회는 순교적 각오로 거부하고 저항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8년 8월 7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한국기독교연합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
한국교회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개환 목사 외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유종현 목사

“‘마음의 평안’ 주는 교회 되어야”

예총연 신학협의회 제17차 신학세미나 ‘예수님은 상담자’ 주제로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연합회 신학협의회 제17차 신학세미나가 지난 8월 9일(목) 오전 서울 종로구 여전도회관 2층 루이스기념관에서 열렸다.

우리교회 임박우·엘진양단의 은혜로운 찬양으로 문을 연 세미나는 신학협의회 회장 김의경 목사의 인도로, 부회장 강진명 목사의 기도와 부회장 함배옥 목사의 성경봉독(요한복음 4:5-10), 신학협의회 일동의 특송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부회장 문인주 목사가 강사인 철학 박사 한성열 교수(고려대 심리학과 명예교수, 한국생활상담협회장, 상담목회아카데미 이사장, 상담교육원 단장)를 소개하고, 한성열 교수가 ‘예수님은 상담자’란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한성열 교수는 참석자들에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분이냐”며 공개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내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을까, 아니면 예수님의 한 부분만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고민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교수는 이사가 선지자가 표현한 대로 예수님은 기묘자와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면서, 그중에서 ‘기묘자라 모사라’에 대해 강연을 시작했다.

한 교수는 ‘NIV성경’에 ‘기묘자라 모사라’란 뜻이 ‘Wonderful counselor’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토대로 ‘기묘자라 모사라’를 ‘위대한 상담가’라고 정의 내렸다.

그러면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메가처치’의 공만을 쫓지 말고, 진정 성도들의 ‘마음의 평안’을 주는 교회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한 교수는 세계 유일의 성장을 보여준 한국 기독교가 21세기 오늘날에 와서는 국민들에게 외면당하는 종교로 전락한 한 이유에 대해 묻고, 젊은이들이 염증을 느끼고 떠나는데서 이유를 찾았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향후 30년 조망

한국교회평신도지도자협회 30회 정기총회, 강무영 회장 재선임

한국교회평신도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강무영)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지난 8월 7일(화)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7층 대강당에서 제30회 정기총회를 열고 새회기 사업계획과 예산을 확정하는 등 회무를 처리하는 한편 현 대표회장 강무영 장로를 31회기 대표회장으로 재선임했다.

한국교회평신도지도자협의회는 이번 총회에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의 자리,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에 앞장설 것을 선언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란 주제로 개최된 이번 총회는 동 협회 30년을 뒤돌아보고, 미래 30년을 새롭게 조망하는 총회로 열렸다. 또한 총회원들은 성경으로 돌아가, 아니 예수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만장일치 기립박수로 채택했다.

이 성명서는 △적변기와 변혁기를 맞은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안에



서의 변혁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을 애국적 차원에서 치밀한 계획과 강력한 정책 수립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거역하는 동성애 단호히 배격 △동맹국인 미국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수호, 세계평화를 위해 긴밀히 협조와 유대강화 △다음세대를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 저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회교육 콘텐츠 개발 △연합단체와 지도자들의 기득권과 명예를 내려놓고, 연합과 일치운동에 봉사하는

교회와 지도자로 거듭나기 등을 촉구했다. 대표회장 강무영 장로는 “오늘 한국교회는 변화되고, 개혁되어야 한다. 그것은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예수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나라운동을 벌이는 것”이라면서, “한국교회평신도지도자협회가 창립된 지 30년이 되었다. 앞으로 30년은 한국교회의 변화를 위해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에 모든 힘을 결집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제 73주년 8.15 광복절 연합예배

양정섭 목사 “오직 성경으로 시대를 분별하는 사역자” 당부

사)한국기독교교회교단연합(이사장 양정섭 목사)는 지난 8월 14일(화) 여전도회관에서 사)세계기독교교회연(총재 김권현 목사), 사)세계기독교교회연(대표회장 최옥석 목사), 사)한

국기독교교회교단연합(대표회장 박형렬 목사)와 가입교단 임원 및 회원들이 모여 제73주년 8.15 광복절 연합예배를 드렸다. 사)세계기독교교회연 상임부총재인 노종관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는 사)세계기독교교회연 총재 김권현 목사의 대표기도, 예정함동 개혁 총회장 이승권 목사의 성경봉독, 개혁총장단의 찬양과 예정장동 김병섭 목사의 색소폰연주, 사)한국기독교교회교단연합 이사장 양정섭 목사의 설교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연합예배에서 양정섭 목사는 ‘하나님의 기적’(왕산 17:1-17)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시대를 분별하여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받고, 세례요한과 같이 외치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립들로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아가길 바라며 오직 성경 그대로 믿고 성경대로 역사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에 바로 서서 끊임없는 기도로 승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기연, 3개 기관 대통합의 원칙 재확인

동시통합 힘들시 한교총과 먼저 추진키로

한국기독교연합(대표회장 이동석 목사)은 지난 8월 3일 오전 11시 한기연 회의실에서 제7-5차 임원회를 열고 3개 기관 대통합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동석 대표회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임원회는 한교총이 지난 7월 20일 임시총회에서 법인설립을 결의하고 본 한기연과의 통합을 위한 대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오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되었다.

이날 임원들은 통추위 활동보고와 함께 이 문제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한 끝에 1) 3기관 통합의 대원칙을 재확인하고, 2) 3기관 동시 통합이 어려울 경우 순차적으로 한교총과 먼저 통합을 추진하기로 하며, 3) 한교총과의 통합 추진은 본 법인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과 미납 분담금 문제 해결을 전제로 적극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임원회는 결의에 앞서 통합추진위원회의 보고를 받았다. 위원장 권태진 목사는 지난 7월 27일 군포제일교회에서 한기연, 한교총, 한기총 3개 기관 통추위원들이 모여 논의된 사항을 보고하면서 한기총의 경우, 아직 통합을 위한 내부 준비가 미흡함을 인정하고

추후에 준비가 갖춰지는 대로 통합에 나서겠다고 밝힘에 따라 우선 한교총 대표들과 통합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음을 보고했다. 또한 통추위가 한교총과의 통합을 위한 실무 대화를 사무총장 최귀구 목사에게 위임했음을 밝혔다.

한기보협, 광복절 73주년 감사예배 드려

한홍교 대표회장 “독립 위해 많은 이들 희생”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대표회장 한홍교 목사; 이하 한기보협)가 지난 8월 14일(화) 오전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기보협 비전센터에서 ‘73주년 광복 감사예배 및 변도윤 전 여성부 장관 특강’을 개최했다.

박승주 목사(새일꾼선교회)의 인도로 시작된 1부 예배는 이창희 목사(예장 합동보수)의 대표기도, 조미애 목사(기독교대한자유훈리회)의 성경봉독, 한홍교 목사(대표회장)의 설교, 이진한 목사(예장 예복)의 특별기도, 김오순 목사(예장 선교중앙)의 봉헌기도, 영영수 목사(한국기독교영성총연합회)의 격려사, 한홍교 목사의 인사, 김준희 목사(사무총장)의 광고, 이유식 목사(예장 합동보수)의 축도로 드렸다.



‘깨닫지 못하는나?’(마 15:16)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한홍교 대표회장은 “우리 인생에서 과거를 돌아보는 순간이 많다. 인간의 삶은 행복과 불행으로 이뤄진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고 즐거운 삶을 살 것인가, 노력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며 “오늘 우리가 광복 73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 과거 일체 강점기에 어떤 아픔과 고통을 겪었는지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아대책-대신총회 선교협력 협약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회장 유원식)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총회장 김동성 목사)와 선교사역에 관한 교류·협력을 추진

하기로 협의했다. 지난 7월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기아대책 사옥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전용림 기아대책 부회장, 예장대신 김동성 총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선교, 봉사, 구제활동과 관련한 교류 협력을 추진하기로 결의했으며, 이를 위해 구체적인 시행방향을 향후 논의해 가기로 협의했다.

전용림 기아대책 부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영적 육체적으로 죽어가는 생명들을 위한 나눔과 섬김이 변저 나가기 소망한다”고 말했다.

김동성 총회장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하는 기아대책과 대신총회의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주시길 믿는다”고 말했다.



2018국제장애인문화엑스포 Peace Festival 개최

국내외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다양한 문화예술공연

사단법인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중앙회(이사장 최공열)는 지난 8월 16일(목) ‘2018국제장애인문화엑스포 PEACE FESTIVAL’을 개최했다. 본 행사는 국내외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문화예술교류의 장을 마련해 문화를 공유하고 감동을 나누고자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 국제장애인문화엑스포에서는 국내외 장애인·비장애인 약 100여 명이 대거 참석해 광복73주년과 제주방문의 해를 기념했다.



주요 프로그램에는 국내장애예술단 하늘 나무무용단과 FM전시양상블, 영월동강합창단, 예빛우쿨밴드, 이코디어니스트 김준영, 꿈누리양상블 6명과 해외장애예술단 하모니스트 니시카와 요시오의 다채로운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졌다. 이 외에도 15일에는 지역 주민을 위한 PEACE CONCERT를 제주성안교회에서 진행되었다.

사단법인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중앙회에서는 앞으로도 국제장애인문화엑스포 PEACE FESTIVAL을 통해 국내외 장애인에게가 왜 장애인문화예술의 비전을 공유하고 네트워크형성의 장과 삶의 영역을 능동적으로 넓혀갈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기대한다.

‘복음의 합당한 생활’ 주제로 여름 캠프

충북지방회

충북지방회(회장 오병용 목사·아멘순복음교회)는 지난 8월 2일(목)~4일(토)까지 2박 3일 동안 미원 대덕숲(도로중 마을)에서 ‘복음의 합당한 생활(빌 1:27-28)’이란 주제로 유소년 여름 캠프를 가졌다.

이번 유소년 여름 캠프는 지방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정수 목사)의 주관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회 신하 14교회 150여 명이 참여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었다. 강사진으로는 오병용 목사, 정유철 선교사, 명재춘 실장, 최복이 본측 대표, 김정수 목사, 김경준 목사, 기호선 목사, 조재호 목사, 정재광 목사, 김진호 목사가 능력 있게 인도하였다. 프로그램으로는 2일(목)에는 개회예배, 오리엔테이션, 교회별 모임, 한국교회사, 분



반공부, 성령대명회를 가졌고, 3일(금)에는 분반공부, 창조나? 진화나?, 야외활동, 꿈 너머 비전, 성령대명회를 가졌다. 한편, 저녁 성령대명회에는 지방회 목회자와 사모들이 함께 참여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였으며, 4일(토)에는 분반공부, 나눔과 교제시간과 폐회예배 등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유소년 여름 캠프를 위하여 지방회는 개인별 회비 2만 원을 제외한 부족한 행사 비용 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그 외 각 교회에

서 많은 찬조금과 간식까지 후원하여 풍성한 행사가 되었다. 또한, 이번 여름 캠프 교사 강습회를 위하여 이목순복음교회(담임 이문근 목사)에서 장소와 섬김으로 헌신해 주었다.

앞으로 충북지방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하였고, 내년 수련회를 위하여 지금부터 준비 할 뿐만 아니라 더욱 많은 교회가 참여할 것을 약속하며, 아쉬운 여름 캠프를 마무리하였다.

경기지방회

경기지방회(회장 김병호 목사)는 지난 8월 20일(월) 오전 11시, 동두천시 큰시장으로 26(생연동)에 위치한 순복음진리교회(담임 김바울 목사)에서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총무 김바울 목사의 사회, 부회장 전하세 목사의 기도, 서기 조영진 목사의 성경봉독, 증경회장 정광호 목사의 설교, 재무 안재봉 목사의 헌금 기도 순으로 이어졌다.

정 목사는 에스라 7:1-10 말씀을 본문으로 ‘에스라를 쓰신 이유’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에스라는 아론의 16대손이며, 율법에 익숙한 자요, 하나님과 사람(다리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이와 같이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실천하기 위해 결단하는 목회자가 되



자”고 회원들을 권면하고 축복했다.

예배를 마친 후에 각부 보고를 받고, 10월 부흥성회, 회원단합 국내여행, 경조회 내규 수정을 결의함으로 회무처리를 마친 후에 증

경회장 김홍광 목사의 폐회기도로 월례회를 마치고, 순복음진리교회에서 준비한 맛있는 오찬과 찜질방에서의 간식으로 즐거운 교제 시간을 가졌다.

총회신학교 후원에 다같이 참여합시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후원회
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제67차 총회 제2회 실행위원회

— 아 래 —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본 교단 제67차 총회 제2회 실행위원회를 교단 헌법 제8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18년 9월 17일(월) 오후 1시 (12시부터 점심식사)

2) 장 소 : 총회본부(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TEL. 02-2675-5181~3)

*점심식사 등 준비관계로 참석여부를 9월 11일(화)까지 총회본부(02-2675-5181~3)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22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총 회 장 목사 임 웅 재
총 무 목사 신 재 영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산하 지방신학교

2018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요강



(학장 한 명 점 목사)

예하성부산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35번길 14
- T E L : 051)803-3927
- F A X : 051)581-0198
- e-mail : yhsbs3927@hanmail.net



(학장 김 양 인 목사)

예하성광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안구 목련로 372-25
- T E L : 062)952-7004
- F A X : 062)953-5004
- e-mail : sm1004@daum.net



(학장 오 일 선 목사)

예하성충남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1길 14 한길프라자 B동 301호
- T E L : 041)567-3004
- F A X : 041)575-3171
- e-mail : changdeman@hanmail.net



(학장 김 상 용 목사)

예하성청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학교장 장학금, 이사장 장학금, 지방회 장학금, 목회사역자, 사모, 자녀 장학금
- 주 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68
- T E L : 043)274-2265, 273-2211
- F A X : 043)237-2705
- e-mail : ho-gi@hanmail.net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http://www.aogk.org / e-mail:aogk@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길 8
TEL:02)2675-5181~3 FAX:02)2677-5181

■ 생명의 말씀 ■



김 남 수 목사

· 경기남지방회 중경회장
· 밝은빛교회

본문에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한 과부가 자주재판관을 찾아가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2-3절)

그러나 그 재판관은 처음 얼마 동안은 외면하며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하고 들어 주었습니다.(4-5절)

예수님은 갓세대에 동산에 올라가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고 얼굴을 땅

에 대시고 통곡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마 26:39)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오실 때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하였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고, 영혼의 호흡이요, 축복의 통로요, 하늘의 보고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절망과 한숨과 눈물을 희망과 찬양과 미소로 바꾸게 합니다.

약 5:13-15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찌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찌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찌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기도와 응답

(눅 18:1-8)

전 7:14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하였습니다. 소나기가 쏟아지면 처마 밑으로 피하는 것처럼 곤고한 날에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당할 때, 병 들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낙심치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기쁨과 감사와 응답과 감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렘 29:13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였고, 렘 33:3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하였습니다.

환난을 당해 사명의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 마음을 찢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을 만날 수 있고 각종 문제해결을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시 145:18) 우리가 공회하심

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가장 큰 증거는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기도는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신실한지 나타내주는 척도가 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살전 5:17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였습니다. 이는 세상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세상의 밝은 더욱 깊어져가고, 우리가 기도로 깨어 경성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승리하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승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기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기도요, 찬송하는 것도 기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기도인 것입니다.

2002년 영국 BBC방송이 영국인 10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내용은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는 지도자는 누구인가?였습니다.

이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사람은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그의 학창시절은 품행이 나쁘고 희망이 전혀 없는 아이였으나 그의 힘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는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처칠은 전쟁터에서나 국회에서 늘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큰 능력을 주시며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끝없는 끝 한 손가락을 만들기 위해 꽃과 벌집 사이를 4천 2백번이나 왕복한다고 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게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말씀하듯이 우리는 자연의 미물들로부터 배우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낙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간성으로 하는 기도인지, 간절한 기도인지 분간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심을 품고 하는 기도인지 혹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인지 분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시 50:15)

동 정

한반도 평화 위한 특별기도회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신신목 목사)는 광복절을 맞아 한반도평화를 위한 특별기도회를 지난 8월 10일

(금) 여전도회관에서 드리고, 한반도 평화 시대를 주도하는 교회지도자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이날 자리에 참석한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광복절 선언문을 채택했다.

'사랑의 원로목회자 산타'



썸뽕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8월 14일(화) 서울 종로 5가 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재단 앞에 사랑을 주는 여름 산타가 등장해 출근길 직장인들에게 선물과 덕담을 건넸다. 한여름 산타의 주인공들은 80여 명의 원로목회자. 이들은 약 1시간여 동안 정성스레 마련한 선물을 나눠주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었다.

세계병원선교회 콘퍼런스



세계병원선교회 극동아시아대표 신인철 목사는 지난 8월 17~20일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겨울’이란 주제로 자부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한국 일본 몽골 병원선교회 회원 78명이 참석했으며, 강사로 나선 한국병원선교회 명예회장 황찬규 목사는 세계병원선교회 극동아시아의 선교 비전을 제시했다.

세계소방선교대회



한국기독교소방선교회(회장 한정길 안수 집사)는 오는 9월 12일(수) 오후 6시 충주 효성교회(회장 김광수 목사)에서 ‘제3회 세계소방선교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시작한 세계소방선교대회는 대구, 시드니에 이어 충주에서 3번째 대회를 열게 되었으며, 이번 대회를 위해 50여 개국 크리스천 소방인이 함께할 예정이다.

논평

한국교회연론회

군 개혁을 편향된 시민단체가 주도하나?

최근 우리 사회는 군 개혁에 대한 화두로 우려와 걱정을 하게 된다. 우려하는 것은 우리 군대의 중요한 기밀들을 ‘까발리는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군 개혁’이나 하는 것이고, 걱정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개혁된 군대가 유사시에는 대한민국 주적(主敵)과 맞붙어 승리하여 우리의 국방과 안보를 책임질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군대 이야기만 나오면 으레 빠지지 않는 한 인물을 보게 된다. 그는 군인권센터의 소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임 모 씨다. 그는 지난 2014년 숙청 윤 일병 사건을 우리 사회에 이슈화시키면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그는 이후에도 지난해 4월에는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하여 처벌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폭로하여 또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또 같은 해 8월에는 박 모 대장의 소위 ‘공관병 갑질 사건’을 고발

하여 그 4성 장군을 물러나게 하였다.

그리고 올해 3월에는 지난해 탄핵정국 시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가 위수령을 통해 무력진압을 계획한 군사 쿠데타 시도가 있었다고 하여 현 대통령까지 분노케 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 바람에 우리 군대의 기밀과 보안을 가장 중요시하는 기무사가 해체되어 새로운 편제와 축소를 가져오도록 하였다.

그래서 군인권센터의 임 모 씨는 우리 사회의 유명인(?)이 되었다. 그러나 그가 주장하여 문제가 된 사건들은 아직도 진행 중이거나 빛나간 것들도 있다.

지난해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군대 내 동성애자를 색출하여 처벌하라는 것은 ‘동성애 군인 탄압 증거’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지만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육군 내에서 조직적·계획적으로 동성애자 색출을 추진하였음을 입증할 자

료로 볼 수 없다’는 결정과 함께 기각판정을 내렸다.

또 박 모 대장의 공판에서의 소위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그 행위가 분명하고 명백했다면 1년 4개월 이상을 수사로 끌어올 리가 만무하지 않은가?

그런가 하면 며칠 전에는 모 종편 방송에서 임 모 씨가 ‘정관과 핫-라인이 있다’며 군 간부에 호통을 쳤다’는 보도도 있었다. 군의 생명은 지휘와 명령 계통인데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민간인이 이런 군의 체계를 흔들어도 되는 것인가?

거기에는 국방부 장관은 지난 8월 2일, 임 씨를 국방부의 ‘대체복무 도입 지원위원회’ 지원위원으로 위촉한 상태이다.

그렇다면 임 씨는 우리 군대의 개혁을 위한 일에 적합한 인물인가? 우선 그는 군

대에서 병역의 의무를 다한 사람이 아니다. 국방의 신성한 의무조차 하지 않은 사람을 국방 개혁의 기수로 받아들일 수 있나?

모 인터넷 언론에 의하면 그는 성적 취향(동성애)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여 수감된 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병역 거부자들은 특정 종교의 교리에 따른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 인데 반해서 그는 동성애 때문에 군복무를 회피한 인물이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에게 군 개혁을 맡겨도 되는 것인가? 모 인터넷 보도에 의하면 이 군인권센터에서는 군 인권과는 상관 없는 군사 기밀들을 계속 폭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정보를 주는 것이며 그러한 행위는 반국가적인 것이 아닌가?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가? 군인권센터는 분명히 정보기관이거나 정부 기관이 아니라 시민단체이다. 시민단체라면 분명히

정부와는 거리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7월 마린은 헬기 사고 희생자 조문 시에는 국방부 장관에게 유족들이 항의할 때 임 씨는 장관을 연호했다고 알려져 있다.

정도(正當)가 있어야 한다. 누구라도 국가 정책에 대한 것을 지분할 때는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야 한다. 큰소리치고 목소리만 높인다고 다 국정 자문에 참여하고 관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가볍고 쉬운 존재인가?

국가 정책을 국가에 대한 의무도 제대로 못 한 사람에게 맡겨도 되는 것인가? 더군다나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정책문제에 대하여 이런 인물에게 지분을 구해도 되는 것인가를 정부에게 묻는다.

정부는 국민을 ‘바보’로 보지 말아야 한다. 지금 대통령과 여권에 대한 지지도 하락과 민심이반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본다.

홈페이지 : www.agtc.or.kr

2018학년도 제2학기

예 수 교 대 한
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신학교는 신실한 사명자들을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거룩한 성품과 오순절 신학을 겸비하여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명자를 배출함으로 한국과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영적 지도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교육목표

- ① 성경적 오순절 신학의 연구와 정립
- ② 거룩한 성품과 성령의 능력이 겸비된 일꾼 양성
- ③ 건강한 교회를 세울 참신한 지도자 양성

● 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4년8학기 (140학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졸 이상의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
신학과 (편입생)		• 4년제 대학졸업자 : 3학년에 편입 • 전문대 졸업자 : 2학년에 편입 •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할 경우 해당 학년 편입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② 졸업(예정)증명서
- ③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④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⑤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⑥ 방명록(3개월 이내 촬영)
- ⑦ 담임목사 추천서
- ⑧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⑨ 건강진단서(HIV포함)
- ⑩ 가족관계증명서

3. 전형일정 및 접수방법

- ①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②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③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총회신학교 교학처)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30,000원(계좌로 입금)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본 교단 전도사 임명자격을 부여한다.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신학교 교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ASSEMBLIES OF GOD

“편향적 시각의 인권위원장 반대한다”

동반연(동성에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과 동반교연(동성에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 교수연합)은 8월 20일(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된 최영에 후보가 동성에 편향적 시각을 가진 점을 들어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에 최 후보자의 동성에 편향성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도덕과 동성에 동성혼에 대한 비판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성명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된 최영에 후보의 동성에 편향적 시각을 강력히 반대한다.

1. 최 후보자는 2017년 서울광장 쿠퍼 축제에 서울시 인권위원장의 자격으로 서울시인권위원 6인들과 함께 참석하여 ‘동성애자의 인권 보장이 없는 인권의 완성’은 허구다’라며 ‘본래 갖고 있던 인권을 돌려달라’는 정당한 요구인 성소수자 운동에 서울시인권위가 함께 하겠다’고 발언하였다. 대한민국은 동성간 성행위에 대한 처벌은 군대 외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서울시 인권위원 중 한명의 군형법 추행죄(제22조의6)를 즉각 폐지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당장 제정하라’는 발언이 정당한 요구인 성소수자 운동인가? 군대 내 위계질서에 의해 발생하는 추행, 그에 따른 피해자의 인권, 남성 간 성행위로 인

한 질병 감염, 군기의 분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시행으로 야기되는 동성에, 수십 개의 다양한 성적 선호의 보호와 비판 차단·차별로 인해 야기되는 표현의 자유·종교의 자유·양심의 자유의 침해는 무시할 것인가? 중립적 서울시 인권침해 시정기관의 수장으로서 동성애를 편파적으로 옹호하는 성향을 보인 인사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2. 최 후보자가 설립한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청소년성교육표준안’에 성적자기 결정권(성행위의 자유 포함), 다양한 가족 형태(동성 간 동거·임양 포함), 동성애자의 권리(동성 간 성행위 포함)를 교육할 수 있도록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청소년에 이성·동성 간 성행위, 동성·이성간 동거를 교육하여 헌법상 보장된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 가족질서에 배치되는

성교육을 지지하는가?

3. 2000년대 초중반 최 후보자는 국가인권위 사무총장과 상임위원으로서 근무하면서 다음과 같은 동성에 친화적 정책 결정에 직접, 간접으로 관여하였다. 동성애자 인권위 직원 채용, ‘나는 동성애자다, 나는 여성이다’ 프로그램 지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계획 발표, 대학 동성에 영화제 지원, 친동성에 만화, 영화 제작지원, 9개 출판사에 동성애가 에이즈, 성병의 주요 감염 경로라는 사실의 수정 권고,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동성에 사이트 유해 매체물에서 제외 권고, 군 동성애자 인권 보호 지침 마련 권고, 혈액 분진표에서 동성과의 성접촉 정보 권고 등 민주사회의 핵심인 국민의 알 권리, 국민 생존에 관한 보건권에 관한 정보를 전면 차단하고 비중립적, 편향적 인권정책에 영향을 미쳐 왔던 인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균형적인 시각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보편적 성도덕을 수용하는 균형적 시각을 갖춘 전문 있는 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2018. 8. 20.
동성에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
동성에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300개 단체 연합)

‘창조과학’ 2018년 금식 기도회 및 하계 워크숍

한국창조과학회 ‘창조과학과 성경변증’이라는 주제로

무대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한국창조과학회는 지난 8월 10일(금)부터 8월 11일(토)까지 한국창조과학회 강사 및 회원들을 대상으로 ‘창조과학과 성경변증’이라는 주제로 대전 한남대학교 글로벌센터부아아트홀에서 ‘2018년 금식 기도회 및 하계 워크숍’을 가졌다.

특별히 8월 10일(금) 저녁 시간에는 오메가교회 황성은 목사의 인도로 성경적 창조신앙의 회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다음세대와 한국교회의 부흥과 창조과학회의 사역을 위해 전 회원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날인 8월 11일(토) 오전부터 이어진 워크숍에

서는, 오메가교회 황성은 목사의 예배 인도를 시작으로 햇빛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 박형진 교수의 ‘창조과학과 선교’라는 주제로 강연이 있었다. 무신론적 과학주의에 대항하는 선교의 도구로서 창조과학의 중요성과 선교적 위치를 정립해 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고, 앞으로 한국창조과학회가 변증적(apologetic) 사역과 더불어 변혁적(transforming) 사역에도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어서 기독교 변증학자인 창주 서문교회 박명용 목사의 ‘창조주가 왜 기독교의 하나님인가?’라는 주제로 다양한 신관과 다양한 종교의 주장을 가운데에서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심을 변증

하는 강연을 하였다. 성경적 하나님만이 창조주의 자격이 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구원이 있음을 변증적인 접근을 통해 회의론적이고 지성적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 논하였다.

사이비·이단 종교 연구 평론가 「현대종교」 탁지원 소장의 ‘현 시대의 이단, 사이비 동향과 전략, 그리고 그 대처방안’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이단들의 근황과 심각성을 소개하였다.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창세기의 왜곡된 해석을 통해 많은 이단이 생겨나는 현실 속에서 창조과학의 역할과 책임을 고찰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포항공과대학교 김경태 교수의 ‘뇌 이해와 영적 반응’이란 제목으로 오늘날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영혼과 자유의지의 존재 여부에 관한 문제를 뇌과학의 최신 자료를 통해서 자세히 비교하였다. 아직 인간의 뇌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는 시작 단계로서 밝혀진 부분보다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훨씬 많은 분야로, 단편적인 실험 결과를 통해 인간에게는 영혼과 자유의지가 없다고 단정 짓는 무신론적 입장을 살펴보고, 그 반대 입장의 임상학적 결과를 보인 연구를 소개하며 기독교적 영혼의 문제를 물질적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경계하는 과학적 입장을 논하였다.

심우영 목사 // 종교문제대책전략연구소 소장

경악스런 사고집단, 동방번개 전능신교



‘동방번개’ 혹은 ‘전능하신 하나님의교회’ 이하 전능신교가 세인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14년 5월에 발생한 일명 ‘맥도날드 살인사건’으로 불리는 전능신교 신도들의 만행을 통해서다.

중국 산둥성의 맥도날드 햄버거 매장에서 30대 초반의 한 여성이 남녀 5명으로부터 집단폭행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중국당국의 수사결과에 이들 남녀 5명은 일가족이자 전능신교 신도들로 포교를 위해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피해 여성을 “악마”라 부르며 집단 폭행해 사망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이듬해인 2015년 5월 범행을 저지른 일가족 중 아버지와 딸에게는 사형, 나머지 가족에게는 무기징역과 10년형, 7년 형이 선고됨으로 일단락되었지만, 사이비종교의 해악성을 다시 한번 세인들에게 일깨워 준 사건이다. 중국당국은 이를 계기로 전능신교를 사교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는 한편 사이비종교 단체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능신교가 위험한 사교 조짐을 보인 것은 사건 발생 훨씬 이전인 1990년대 말부터이다. 대부분의 사이비종교 집단이 시한부종말론을 앞세워 사람들을 흑세무민하듯이 전능신교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2012년 12월 후반, 종말론을 앞세워 사회 불안 야기하고 있는 전능신교 신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펼쳐 교주 조유신과 많은 전능신교 신도들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로 도피하는 한편 신도 100여 명이 체포되었다.

그러나 전능신교는 움츠러들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존재를 과시하기라도 하듯 유튜브를 비롯, 각종 매스 미디어를 통하여 전능신교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한국교회에 전능신교가 알려지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때쯤이다. 2013년 1월 12일 조선일보를 시작으로 주요 일간지에 ‘중화 대륙에서 탈출이 육신되어 재탄했다’

는 등의 전령광고를 게재하기 시작했다. 당시 한국교회 언론회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능신교는 조선일보를 비롯 주요 일간지에 1월에만 18회나 광고를 게재했다고 한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당 언론사에 광고 게재 중단을 요청하고 한국교회에 주의를 요하였지만 한국교회는 신천지와 인상홍 집단에 매몰되어 주시하지 못했다. 간혹 몇몇 언론사를 통하여 전능신교의 이단성이 제기되어왔으나 한국교회의 이단 사이비 전문 관련 단체나 연구가의 주목을 끌지 못했었는데 맥도날드 사건을 계기로 조금씩 주목을 끌기 시작했다.

중국 종교당국에 따르면 전능신교는 창설 초창기부터 중국에서 맥도날드 살인사건에 버금가는 경악을 금지 못할 피해사례를 남겨왔다고 한다. 맥도날드 살인사건과 같이 포교를 거부하는 자의 귀를 자르는 가 하면 동방번개에 이단 성계 설교를 한 목회자가 태러를 당하기도 했다. 탈퇴한 초등학교생을 살해하기도 했으며 특히 2012년 12월에는 중국 전역에서 40번 이상의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이와 같은 반사회적인 일을 저질렀던 전능신교가 작금 한국에서는 차원을 한 단계 높여 지능적으로 교세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중국에서 이미 기층, 폭력, 가난, 한담 등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신도들은 한국으로 건너와 난민 신청으로 합법적인 종교활동을 위한 신분 보장을 꾀하는 한편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곳곳의 토지 및 연수원 시설들을 매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신천지 집단과 같이 저돌도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국내에 합법적인 단체로서의 세력을 구축하고 나면 이전에 한국교회에서 경멸하지 못했던 경악스러운 사건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단과 사이비 집단은 이미지 관리를 위해 사랑과 평화를 말하지만,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는 신도들에게 두려움을 조성하기 위한 행위로 서슴치 않기 때문이다.

홀트아동복지회, 꿈동이 여름방학 캠프 열어

선 홍보대사 ‘꿈동이 존재가 저에게는 선물이다’

‘꿈동이 여름방학 캠프’가 16일~17일,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도 양평군에 소재한 평창현대빌리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홀트아동복지회가 주관하고 홍보대사 선·정혜영 부부, 한국기독교선교 100주년기념교회, 탐리더스(홀트아동복지회 교역후원 모임)가 후원했다.

‘꿈동이 여름방학 캠프’는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꿈과희망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300명의 위기가정아동들을 ‘꿈동이’로 선발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연

10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며, 각각의 특기와 적성을 개발해 미래의 꿈과 희망을 아름답게 키워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홀트아동복지회 홍보대사이자 행사를 후원한 ‘선’은 행사 당일 아이들을 위한 토크콘서트와 공연을 준비했으며, 이 자리에서 “앞으로 여러분의 10년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우리 부모에게는 ‘선물’이다”는 말을 전했다.

http://agpgs.aogk.org

AG ASSEMBLIES OF GOD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8학년도 제2학기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 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1.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 Master of Ministry)	2년 (4학기)	•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예정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자

2. 제출서류

- ①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②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③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④ 추천서(소정양식) 1부
- ⑤ 반명함판 사진 2매
- ⑥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본) 1부
- ⑦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⑧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3. 전형일정 및 접수 방법

- ①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② 원서교부처 : 본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http://agpgs.aogk.org)
- ③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④ 접수방법 : E-mail 혹은 우편이나 방문접수(luvjx7@daum.net)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50,000 원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② 본 교단 소속 목사 중 목회학 석사(M.M)학위를 취득코자하는 자에게는 50% 장학금 혜택을 부여한다.
- ③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전 9:30분~ 오후 4:40분 까지 진행된다.
- ④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자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하나님이 주신 신비의 열매 아로니아



“아로니아는 장미과에 속하는 다년생 관목으로 ‘블랙초크베리’라고 불립니다. 가혹하고 척박한 생육환경에도 강력한 생명력을 자랑하는 아로니아는 중세 유럽 왕족과 귀족들이 질병예방과 치료의 만병통치약으로 사용하면서 ‘왕의 열매’ (King's Berry)라는 별명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아로니아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과일 중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가장 많이 함유된 신비의 열매로서 현대인의 신체의 여러 질병과 노화를 예방하는 건강보조식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탁월한 성분

아로니아는 칼륨과 같은 다양한 유기 미네랄과 다양한 비타민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로니아는 세포가 노화되면서 발생하는 유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노화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항암효과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로니아 속에는 안토시아닌은 포도의 79배, 크랜베리의 11배, 블루베리의 약 4배에 이르는 양이 포함되어 있고, 카테킨, 레스베라트롤, 퀘르세틴 등의 폴리페놀도 포도의 11배, 크랜베리의 11배, 블루베리의 5배 이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로니아 생과에 포함된 영양성분



효능

- 강력한 항산화 작용 : 유해 활성산소 제거
- 항당뇨 작용 : 혈당을 억제하고 인슐린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
- 항암, 항염, 항고혈압 (위 보호 효과) : 악성세포의 성장을 막고 세포 자살을 유도
- 소염, 항균(살균), 항알러지 작용 : 관절염 예방 및 치료, 알러지 증상 개선
- 시력보호 : 로돕신이라는 색소의 재합성을 촉진시켜 눈의 피로, 시력을 개선
- 피부 노화방지 : 활성산소를 중화해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피부 손상 노화 방지 및 보호
- 심혈관계 질환 예방 : 혈전 발생 억제, 콜레스테롤 억제, 고혈압 예방, 심장질환 및 뇌졸중 예방 및 치료에 효과적, 기억력 개선 효능
- 면역력 강화

섭취 방법

아로니아는 단맛과 신맛 그리고 떼은맛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냉동실에 보관하였다가 그냥 먹거나 우유나 요구르트 또는 과일주스와 함께 믹서기로 갈아서 맛있게 마실 수 있습니다. 또 잼 또는 샐러드로 먹을 수 있고 건강에 더욱 좋은 효소 발효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아로니아는 100세 시대에 접어들어 한국인의 건강을 책임질 최고의 과일입니다. 전국에 있는 교회의 교역자 및 성도 여러분, 무동약으로 재배한 좋은 품질의 아로니아를 믿음의 가족들의 건강에 이바지하고자 하여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드리고자 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체국 504076-02-072136 (예금주 김갑신)

구입문의 010-3621-4853

환돌 아로니아농장

전라남도 여수시 삼암동 8길 38



결혼114 全國支社 및 會員 모집



저희 결혼114는 하나님께 이 사업의 방향을 두고 기도하던 중 미혼 남녀 청년들의 결혼이 교회마다 심각한 점과 개척교회 재정에 보탬이 되는것이 국내 선교에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다는 감동을 받고 전국에서 고생하시며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 신학생을 지사장님으로 모시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사장 자격

- 목사님, 전도사님, 신학생, 사모님 ● 장로님, 집사님 ● 믿음의 형제, 자매

혜택

등록비 54만원(부가세별도) : 고객들이 부담없는 저렴한 비용으로 자신의 이상형을 직접 찾아서 만나고 교제하고 결혼할 수 있음

- 남녀 매칭 문제 본사에서 전담 - 지사에서는 회원 등록만 전담
- 각 지역별 독점권 부여
- 지사 블로그 제작 지원
- 결혼 미팅파티 행사 지원
- 전국 기독교인 회원 보유
- 본사 새로운 사업에 우선 참여 기회 제공

※ 특전 : 본사에서 전국 각 지사로 매달 공유 수당 지급

지사 모집 지역

서울시	성동구, 용산구, 용산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부산시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대구시	지사 계약 완료
인천시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광주시	서구, 남동구, 북구, 광산구
대전시	동구, 서구, 중구, 유성구
울산시	중동구, 남구, 북구
세종시	세종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수원시 팔달구+영통구,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성남시 분당구(상담진행중), 남양주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고양시, 군포시, 화성시, 시흥시, 파주시, 용인시, 이천시, 김포시(상담진행중), 광주시
강원도	춘천시, 강릉시(상담진행중), 원주시
충북	충주시, 청주시
충남	천안시, 아산시, 보령시, 서산시, 공주시(상담진행중)
전남	목포시(상담진행중), 광양시(상담진행중), 순천시
전북	전주시, 군산시, 완주군
경북	구미시, 포항시, 경주시, 영주시, 안동시, 경산시
경남	진주시, 양산시(상담진행중), 김해시(지사계약완료), 창원시, 통영시, 사천시, 거창군
제주시	제주시

☎ 상담전화(전국) 1566-5049

☑ 홈페이지: WWW.결혼114.COM

☑ 신고번호:대구-중구-국내-2015-0006호



기독교영신상조(기독교장례전문) 후불제 (주)안양장례식장 경영

홈페이지 : www.영신상조.kr

30년을 믿음 안에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기독교영신상조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최저의 비용, 최고의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품 45인승 고급버스, VIP리무진, 영정꽃 선택, 장례상품 일체, 전문장례지도사, 상례도우미
내역 총괄전문의 <1호> 270만원 <2호> 370만원 <3호> 470만원은 가족들의 선택임>



▲ 생화사진틀(선택형)



▲ 45인승 버스



▲ 최고급 리무진



▲ 근조기



총괄경영주 박인안 장로

콜전화 : 031)444-5566 / 031)386-5566(011-896-7100)

<최신추모관 특별혜택>

귀한 헌신으로 시골마을 교회가 세워지도록...

전남 무안군 해제면 순복음은혜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름이면 천장에서 물이 새고 바닥에 물이 차올라 성전 재건 축이 필요합니다. 감사하게도 전남 무안갯벌에서 염전을 하는 안수집사님께서 건축재정을 위해 '무안 천일염'으로 헌신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무안 천일염'의 판매수익금을 새 성전 건축에 보태어 만민이 예배하는 성전을 만들고자 합니다.
성전 건축에는 아직도 많은 도움과 후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귀한 헌신으로 시골마을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데 기도와 함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만풍염전에서 생산한 100% 무안갯벌 천일염으로 각종 미네랄과 유기물이 풍부한 친환경 갯벌입니다. 갯벌염전은 청정해역의 바닷물을 끌어들이고, 햇빛과 바람에 의해 자연의 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품질이 매우 우수하며 안전합니다.



구 입 문 의 **010-8060-1141**
계좌 농협 628-02-097358 예금주 왕상엽

한 권의 책으로 장병들에게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 전개 **장래의 꿈을!**

군 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에서는 국가 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위해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TV,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정서가 메말라가고 게임중독 등으로 이기적 삶의 형태로 변해가는 신세대 장병들에게 이러한 기가들을 멀리하고 책과 함께 함으로 정서함양과 협동심, 사회성, 희생정신과 봉사 및 희생정신을 일깨우는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되어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내용의 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장병들에게 평안과 위로, 안식과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종교서적·설교집, 신앙잡지, 설교 테이프, 찬양 테이프, QT 책 등-군생활

속에서 장래의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책과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서적,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의 요리서적, 경제 및 건강관련 서적, 소설로 된 역사책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새 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심코 지나쳤던 책들이 있으면 장병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챙겨 보내주시면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보내주신 한 권의 책이 이기적이었던 신세대장병들을 동료로 내 몸처럼 아끼고 배려할 줄 아는 선한 이웃으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위원회

군선교위원장 박순용 목사 (010-9720-1603)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9년도 목사고시 공고

2019년도 목사고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서 류 접 수 : ① 일시: 2018. 8. 31(금) 17: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② 장소: 총회본부(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③ 방법: 등기우편
* 목사고시청원서 작성 및 제출 안내: 총회홈페이지(www.aogk.org)→ 자료실→ 서식다운로드→ 교단서식→ 제15호 목사고시청원서(구비서류첨부)→ 2부 작성→ 지방회에 제출→ 지방회임원회 심의→ 1부 지방회 보관, 1부 총회본부에 제출.
* 총회목회대학원 2학년 재학생은 우선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12월 졸업과 동시에 '졸업증명서'를 제출한다.
2. 서 류 심 사 : ① 일시: 2018. 9. 06(목) 오전11시 ② 장소: 총회본부 회의실
3. 오리엔테이션: ① 일시: 2018. 9. 20(목)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본부
4. 목사고시료 : ① 납부일: 2018. 8. 31(금)까지 ② 금액: 50만원
③ 입금계좌 : 국민 061701-04-1768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5. 목사고시 : ① 일시: 2019. 2. 11(월)~12(화)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목회대학원 강의실
6. 전도사 경력 계산은 만으로 하되, 계산일은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7. 직장파 목사직은 겸할 수 없으므로 직장을 가진 자는 목사고시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8. 목사고시 응시 자격은 헌법 제37조 및 헌법시행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9. 서류심사 이후에는 목사고시 서류일체와 고시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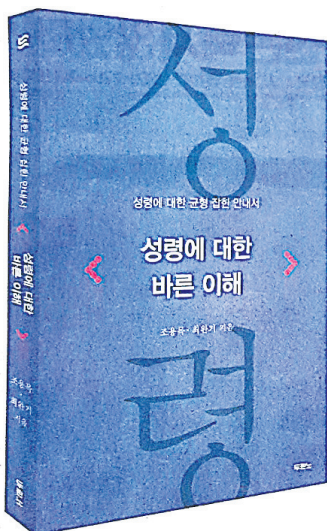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 회 장 목사 임웅재 고 시 위 원 장 목사 김인규
총 무 목사 신재영 고시위원회서기 목사 이석호

성 령 에 대 한 바 른 이 해

잘못 알고 오해했던 '성령론'을 바로 잡는 책



성령에 대한 균형 잡힌 안내서

당신은 성령 충만한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는가?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령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가르침으로 크고 작은 혼란을 야기해왔다. 이는 곧 성령의 바른 이해를 가진 채 은사주의, 변영신학으로 변질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케 했다. 이 책은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여 성령론을 일목요연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 균형 잡힌 지침서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성령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성령충만한 삶으로 안내할 것이다.

왜 다시 '성령론'인가?

책을 집필하기 전 저자의 고민은 '이미 수다한 성령에 관한 책이 출간되어 읽혀지고 있는 이 때에, 굳이 또 한 권의 책이 출간될 필요가 있는가?'였다. 그럼에도 출간을 결심한 것은 '성도들의 성령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가장 큰 이유였다. 신학의 여러 분야 가운데서도 유달리 성령에 대한 이해는 심지어 같은

교단이라 해도 다른 견해를 가지곤 한다. '성령세례'와 '방언', '신유'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게다가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심하게 왜곡될 경우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로 빠질 수 있기에, '성령론'의 연구와 올바른 안내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성령은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은 성령을 무엇이라 말하는가?

성령은 힘이냐 능력이 아니다, 성령은 하나님이다!

저자는 성령을 알기 위해서는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경은 신약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성령의 일하심을 기록했고, 이는 태초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성령은 어떤 신비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늘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혜사이시다. 이밖에도 '성령충만'의 올바른 이해와 '성령세례', '은사'와 '열매', '방언'과 '신유' 등,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는 이 책의 균형 잡힌 안내를 통해 한국교회의 성숙과 뜨거운 성령충만의 회복을 기대한다.

저 조용목 목사

자 최완기 목사

은혜와진리교회를 개척 설립해,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의 목자로서 바른 길의 안내자가 되어 주고 있다. 현재 한국신학회 이사장, 세계하나님의성회 실행위원이다.

세인트루이스교회에서 30년 간 목회한 후, 현재 시카고에서 '4-14 윈도우'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프라미스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제45차 한국기독교실업인회 한국대회 개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제로 3천여 명 참석

기독교 실업인과 전문인을 위한 국내 최대 축제인 제45차 한국기독교실업인회(CBMC) 한국대회가 지난 8월 15일(수)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막이 올랐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따 6:33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국내 기독교 실업인 3천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17일까지 2박 3일간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는 CBMC의 비전을 재강화하고 가정, 일터, 사회에서의 역할과 사명을 찾기 위한 예배, 워크숍,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대회는 서흥빈 광주전남연합회 회장(광명D&C 대표)이 준비위원장, 세라 박 총괄부회장(한국CBMC 중앙회)이 각각 맡았다.

이번 대회에는 집 펜스탈 국제CBMC 회장이 내한하고,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중식 목포시장 등 주요 인사들도 참석하여 성공적 대회 개최를 축하했다.

이승을 한국CBMC 중앙회장은 “이 땅의 비즈니스 미션의 지평을 확대하고 김대중퍼니의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라며 “4차 산업혁명기를 맞은 시대사의 흐름을 잘 간파해 성경적 경영의 토대 위에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대안을 창출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런 일터 사역의 소명과 리더십 개발이야말로 CBMC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승을 중앙회장은 이어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죽음 가운데서 새 생명을 일깨우는 부활의 기독교인”이라며 “국내적으로 경기침체가 심화되는 시점에서 열리는 이곳에서 새 힘을 얻어 일터 사역



현장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길 원하고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 거듭날 CBMC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흥빈 준비위원장은 15일 개회식 환영사에서 “그동안 광주전남연합회 준비위원회는 한국대회를 위해 오직 기도로 모든 회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하여 준비해 왔다”며 “하나님의 뜻과 온전히 하나 되어 가정과 일터, 한국CBMC와 한국교회에 회개와 회복, 변화와 반전이 일어나는 놀라운 성령 충만의 한국 대회가 될 줄 믿는다”고 말했다.

개회 메시지를 전한 전원호 목사는 ‘요셉처럼’(창 39:1~6)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요셉의 형통은 어떤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시

고 복을 내려주시는 형통이었다”며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함으로 우리 가정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의를 아름답게 드러내기를 축복한다”고 말했다.

한국대회 주강사는 임현수 토론토 큰빛교회 원로 목사,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나서며, 이 외 전원호 광주은광교회 목사, 신재원 미 항공우주국 부국장, 장대성 화한 회장, 이상직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방선오 땅지대 사무지원처장, 이계호 충남대 교수, 서우경 한국상담교정진흥원 원장, 박광희 ㈜르호봇 대표, 김형진 ㈜헤브론스타 대표가 성경적 경영과 21세기 혁신, 통일과 다음 세대, 크리스천 리더의 역량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

‘100세 시대’ 실버세대 역할 중요

‘OMCA’, ‘OWCA’ 연맹 출범…시니어운동 전개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수명은 남자 80세, 여자 85세로 추정된다. 평균수명의 계속적 연장으로 ‘100세 시대’라는 말이 일상화되고 있고 90세까지 생존 확률이 높아진 시점에서 인생 2막을 넘어 인생 3막을 일컫게 되면서 이들 실버세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고령화를 의식해 1980년대 말부터 은퇴 후 건강하게 지내는 시기를 제3기 인생으로 보고, 이 시기는 개인적 성취의 시기가 돼야 한다는 ‘제3기 인생론’이 선진국에서 크게 호응을 받아왔다. 또한 1990년대부터 UN과 WHO 등에서는 건강노화(healthy aging)와 활동노화(active aging)를 고령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개인적 및 사회적 대책으로 권장해 오고 있다.

이러한 ‘고령사회’의 현실에 발맞춰 ‘불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의 나라 확장하는 일을 세계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단체를 표방한 시니어별인출범을 앞두고 있다. 바로 OMCA연맹(Old Men’s Christian Association/기독교노인회)과 OWCA연맹(Old Women’s Christian Association/기독교여성노인회)이 바로 그것이다.

1844년 영국 런던 조지 윌리엄스의 작은 방에서 시작한 YMCA운동, 1855년 영국 런던에서 여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프레이어 유니언(Prayer Union)이 조직된 것이 시초였던 YWCA(기독교청년)운동이 오늘날 세계적인 유명한 운동으로 발전한 것과 같이 OMCA, OWCA 역시 고령사회 속에서 시니어들의 정신적·영적 상태의 개선과 사회적 역할을 도모하고자 설립, 세계 최대의 ‘기독교사회운동체’로서 지리를 잡아간다는 복안이다.

동 단체는 평소 시니어운동을 전개해 왔던 시니어분회의 전문기인 권태진 목사(군포제일교회)의 오랜 노력의 결실로 설립하게 됐다.

이 단체를 결성하게 된 계기는 심각한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65세 이상 시니어도 사회적 부담분해 해법이 시급하다는 데서 기인했다. 특별히 시니어 스스로의 성공적 노후생활을 위해서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만 65세 이상 시니어의 경우 현재까지 쌓은 경험, 기술, 지식만으로는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한 현실을 직시했다.



어린이전도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JOY어린이영어합창단 원데이캠프 개최

교회별로 다음 세대의 주인공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전도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지만, 한국교회의 주일학교 출석률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상황 속에, JOY 어린이영어합창단이 원데이캠프를 성황리에 열어 교회에 새로운 어린이전도의 패러다임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8월 7일(화) 오전 10시, CTS 컨벤션홀에서 원데이캠프를 연 JOY 어린이영어합창단은 CTS 기독교 TV의 엠 라디오인 CTS라디오JOY 소속 합창단으로, 본사, 김포, 신길 지역에서 7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원들이 활동 중이다.

JOY 어린이영어합창단은 미국에서 성경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심더바이블>을 교재로 사용하며 여기

에 영어교육, 합창과 인부교육 등을 접목하여 요즘 세대의 트렌드에 맞는 방법으로 어린이들에게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심어 주며, 지역교회에는 새로운 전도의 도구가 되는 것을 창립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합창단을 기획한 담당이사는 ‘JOY 어린이영어합창단’은 성경공부, 영어공부, 신나는 음악과 댄스를 접목한 어린이 전도의 도구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과 믿음으로 훈육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지향한다고 전했다.

본 합창단을 맡고 있는 CTS라디오JOY 강명준 사장은 인사말에서 ‘JOY 어린이영어합창단’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알고세상에 빛이 되는 아이로 성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세군, 쪽방촌 주민들과 삼계탕 나눔 행사 가져

한국구세군(사령관 김필수)은 무더위가 한창인 8월 초, 서울 돈의동 쪽방촌과 남대문 쪽방촌에서 삼계탕 나눔 행사를 가졌다.

종로3가에 위치한 돈의동 쪽방촌에는 550여 명의 주민들이 1평이 채 되지 않는 작은 쪽방에서 폭염과 싸우며 힘겹게 더위를 이겨내고 있다. 에어컨은커녕 선풍기도 맘 편하게 사용하기 힘든 이들 주민들에게

는 이번 여름을 건강하게 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이다.

돈의동 쪽방촌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세군 돈의동 쪽방 상담소 역시 폭염 특별 대책 기간을 정해 여름나기 물품들과 일민 생수병 등을 주민들에게 날마다 직접 전하며 함께 더위를 이겨내고 있다.

이번 삼계탕 나눔 행사는 무더운 여름날, 이들 쪽

방촌 주민들에게 삼계탕 한 그릇이라도 전해주었으면 하는 마음들이 모여 성사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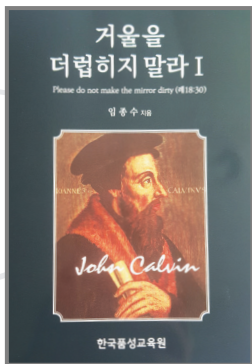
돈의동 쪽방 상담소 소장, 장경환 사관은 “얼마 전부터 계속 쪽방촌 주민들이 삼계탕을 먹고 싶다는 바람들을 전해 주었다”며, “이런 좋은 기회를 통해 주민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게 돼 감사하다”는 소감을 전했다.

구세군 서울지방장관 신재국 사관은 이날 자리에서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나기 위해 함께 크게 웃었으면 한다”며, “구세군은 여러분들의 친구이고, 언제나 함께하겠다”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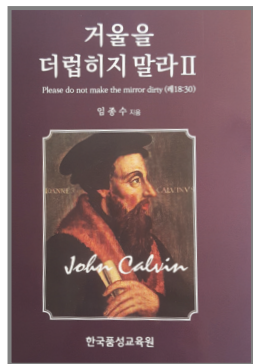
돈의동 지역의 교회를 빌려 쪽방촌 주민들을 초청한 자리에는 약 25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해 삼계탕을 함께 나누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함께 하지 못한 돈의동 쪽방촌 주민들 약 150여 명과 남대문 쪽방촌 주민 약 400여 명을 위해서는 구세군 서울지방의 사관 및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삼계탕을 전달해, 전체 약 800여 명의 쪽방촌 주민들이 구세군과 함께 삼계탕을 나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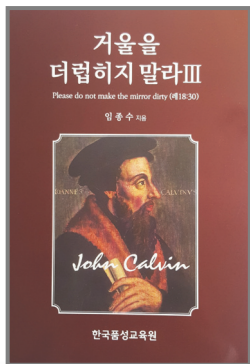
믿음은 구원으로 인도하고 품성은 행복과 성공으로 인도한다



제1권 품성과 비슷한 덕목인 성격, 덕성, 인격, 개성을 바울은 어떻게 개발하였는가? 이조 500년 유교와 고려 500년 불교가 만든 어떤 윤리 도덕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윤리부분 7가지와 자기 계발의 부문에 필요한 10가지를 논하였다.



제2권 대인관계 부문 10가지와 신사적인 성도가 되기 위한 품성 4가지와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품성과 더 좋은 것과 가장 좋은 품성이 무엇인가를 논하였다.



제3권 부정적인 품성 6가지와 영적전쟁의 품성 10가지와 신자가 물리쳐야 할 세력들 즉 점과 굶, 자살, 인종차별과 이단적결을 논하였고, 올바른 생활을 위한 실천분야 5가지를 논하였다. 만약 이 책을 매일 한 과씩 훈련한다면 훌륭한 신자가 될 것이다. 곧 새 언약과 품성과 자유의 대 헌장 두 권이 출판 될 것이다.

품성은 성공과 행복의 열쇠이다. 품성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이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는 영적인 면만 강조하고 육체를 가진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등한시하여 삶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야 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남의 발에 고추를 따가는 생활이 그 대표적인 이야기이다. 그래서 저자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영적훈련을 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품성에 관한 책자를 7권 출판하였다. 최근에 출판된 ‘거울을 더럽히지 말라’ 1,2,3권을 소개하고 한다.

강의 안내

각 교회에서 시행되는 각종 중직자 세미나
각 지역에 거주하는 목회자들의 소 그룹

책 구입처

cslim4305@gmail.com 임종수 원장
재무담당 이미란 이사 010-8618-9982
계좌번호 농협 351-0771-1742-13
한국 품성교육원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목소리’ 진행

월드비전, 해외사업장 현장 교육



국제구호개발NGO월드비전(회장 양호승, <http://www.worldvision.or.kr>)이 지난 8월 5일(일)부터 11일(토)까지 월드비전 몽골을 방문하는 현장 교육 프로그램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목소리’를 진행했다.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목소리’는 UN 아동권리협약에 기반한 아동권리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아동들이 개발도상국을 방문해 아동 권리 실태에 대해 현지 아동들과 논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현장 교육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몽골 10개의 사업장에서 아동권리에 대한 활동을 했던 저널리스트 동아리 아동들과 나이팅달 국제 청소년 수련원에 방문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월드비전 아동권리위원회 소속 아동 16명과 저널리스트 동아리 소속 몽골 아동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여 아동들은 올해 주제인 ‘아동 보호권’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몽골의 아동 보호 실태 및 각국에서 가져온 이슈들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 연극 공연, 신문 기사 작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국내사업본부 김순이 본부장은 “이번 교육은 양국의 아이들이 만나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의견을 나누며 자신의 권리를 주체적으로 습득하는 참여의 장”이라며, “아이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한 주된 의식과 세계 시민 의식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북힘찬병원-한기총 총무협 업무협약

이광원 병원장과 김경만 회장 간에

의료법인 상원의료재단 강북힘찬병원(병원장 이광원)과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총무협의회(회장 김경만, 이하 한기총 총무협)는 지난 8월 14일(화) 강북힘찬병원에서 MOU를 체결하고, 상호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진료업무 제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병원 측은 한기총 총무협 임직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측은 지속적인 우호 협력관계 유지와 상호 업무협조를 통한 공동이익의 증진을 도모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광원 병원장은 “진료 의뢰 시 최선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국민건강보건의료법, 의료급여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직원 가족, 교수, 재학생들 마을 벽화 그리기 동참

백석대·백석문화대, 천안 목천읍 송전리마을 일대에서

백석대학교(총장 장중현)·백석문화대학교 교직원 가족 및 교수, 재학생 20여명은 8월 16일(목) 오전 8시부터 천안 목천읍 송전리마을 일대 마을 벽화

그리기’에 나섰다. 이번 마을 벽화 그리기 행사는 대학과 천안시공동체지원센터와의 교류협력협정 내 ‘사회맞춤형 산

학연계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애초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라 교직원 및 그 가족들까지 확장돼 진행됐다.

마을 벽화 그리기는 디자인전공 재학생들이 밑그림을 그리고, 교직원들과 가족이 그 그림에 색을 입혀나가는 것으로 나눠 진행됐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백석대학교 대학평가원 서정희 씨는 “아이들과 함께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는 시간을 만들기 어려웠던 참인데 좋은 기회가 생겨 참여하게 됐다”며 “달보다 행동이라고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아이들의 누군가를 돕는 마음이 한 뼘 자라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진·홍수 피해 라오스 긴급 지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홍수 피해 11만 달러 규모 구호 실시

글로벌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계환)은 지진 홍수 피해로 막대한 사상자를 낳은 인도네시아와 라오스에 총 11만 달러(한화 약 1억3천만 원) 규모의 긴급구호를 실시한다.

우선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지진피해로 약 300명의 사상자를 낳은 인도네시아에 6만 달러 규모의 긴급구호를 실시한다. 인도네시아 북롬복(North Lombok) 지역에 위치한 삼빅 방콜(Sambik Bangkol) 마을 아동 1200명을 대상으로 재난상황에서의 아동보호를 중심으로 한 긴급구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구 8천여 명이 거주하는 삼빅 방콜 마을은 이번 지진 피해로 극심하게 입은 마을 중 하나로, 마을 건물의 80%가 붕괴됐으며 마을 내 모든 초등학교 7개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민 대다수는 마을 내 평지에서 텐트를 치고 생활

하고 있으며, 약 1200명에 이르는 아동이 현재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특히 상당수의 아이들이 부모가 돈을 벌기 위해 타지로 나가 있어 긴급재난 상황 속에서도 보호자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방치돼 있는 상태”라면서 아동 구호의 시급성을 전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인도네시아 피해 지역에 아동 중심공간(Child Centered Space)을 설립해 아동 심리상담 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보호자가 없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 아동보호활동 매커니즘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대비를 위해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재난위험경감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역사회 자원활동가를 양성하는 전문 훈련도 계획 중이다.

가족세트전도 참관기

전도의 문이 열린다

저는 서울에서 시온성교회를 담임하는 백춘기 목사입니다. 목약 30년 동안 전도를 해왔지만 돌아보니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구원에 이르게는 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실패의 그림자 속에서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열매 맺는 전도에 대한 돌파구를 열어 갈까 고민하던 중 지난 6월, 지인 목사의 소개로 가족세트전도법 박영수 목사를 저희 교회에 초대했습니다.

강사인 박영수 목사가 직접 전도 현장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제시하고 영접기도 시킨 후 이튿날 주 소 전화번호를 찍고 교배를 붙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날 이 경험을 한 후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사라지고 뜨거운 열정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후 지난 7월, 지인 목사의 교회에서 박영수 목사의 가족세트 전도세미나가 있었습니다. 한 미용실에 들어갔는데 원장이 손님 머리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원장은 교회에 다니고 해서 머리를 자르고 있던 손님에게 1:12 말씀을 전하고 영접기도를 따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받은 것을 축하한 후 이튿날 전화번호 주소를 적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더운 날씨에 한창 머리 손질하는 중에도 짜증이나 제지를 당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까지 마친 후, 다음에 꼭 다시 만나자는 약속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날 10여 집을 전혀 망설임이나 주저함이 없이 들어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예수 믿으시라고 전도지를 주면서 점잖게 권면만 해왔던 저의 전도 방법이 천지개벽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영접기도를 새벽기도 때마다 반복해서 리허설을 하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현장의 중요성입니다. 아무리 이론으로 무장해도 전도현장 경험 없으면 세세한 전도 역량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직접 전도 현장에서 부딪히고 실행해 봄으로써 현장마다의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권면하고 싶습니까. 간절한 복음으로 무장하고(영접기도) 권면할 말씀을 가지고 뜨겁게 3시간 이상 기도하고 가족세트전도 교재에 나오는 시스템으로 반복훈련을 받고 무조건 나가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일생일대의 축복과 함께 인생의 전환점을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들만을 앞장세울 것이 아니라 전도 전문가인 목회자들이 전도 열정을 회복하여 이 땅위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시온성교회 담임 백춘기 목사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5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구강건강의 파수꾼 옥금수(소금물)

옥금수의 효능

천해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으로 만든 옥금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운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사용법 및 효능

*소금물 1/4컵을 따라 칫솔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혀지도록 골고루 닦아 줍니다.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성대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 충치 예방 2. 풍치 예방 3. 잇몸 질환 4. 혀 살균 5. 편도 보호 6. 감기 예방 7. 헛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가글의 효능)

옥금수(소금물) 홍보 상품 활용을 희망하시는 교회와 성도님께는 500ml 20pet-30pet 단위로 보내 드립니다. 500ml 20개 들이와 500ml 30개 들이 두 종류가 있으며 500ml 1pet 당 1,000원입니다. 수령하시는 교회 또는 성도님들께서는 주소, 성함, 연락처를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개척교회(힘드신 교회)에 전도용으로 보내드립니다. 간수 잘 빠진 천일염 20,000원에 판매합니다.

20개들이 20,000원 30개들이 30,000원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교역자국

하계세미나 및 야유회

설교



조용묵 목사
교단 정책위원장
은혜와진리교회 담임

일 시 2018년 8월 27일(월)~8월 28일(화) 1박 2일
장 소 은혜와진리교회 전원성전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 031-298-3739)
대 상 전국 여교역자국
문 의 ① 국장 한순남 목사 (010-2853-8190)
 ② 차장 김바울 목사 (010-8652-9340)
계좌번호 농협 352-1333-4784-13(한순남)
회 비 일만원(접수시 입금)
 ※여러분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제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
 - 에 4:14 -

2018년 하계세미나 및 야유회 일정표

	8월 27일(월)		8월 28일(화)
	개교회에서 → 전원성전으로	7:30~8:30	아침식사
		9:00~10:00	폐회예배 → 석모도 출발
13:00~14:00	접수	13:00~14:00	점심시간
14:30~16:00	개회예배 조용묵 목사	14:00~16:30	자연속으로 (석모도미네랄온천)
16:30~18:00	기도회 1-임웅재 목사	16:30	집으로 교회로
18:00~19:30	저녁식사		
20:00~22:00	기도회 2-고문 목사		
22:00 이후	자유시간		

준비물 : 세면도구, 회비 일만원 접수시 수납

♡ 모시는 글
 할렐루야!



국장 한순남 목사
순복음반송교회

주의 이름으로 교단산하에 속한 모든 여교역자 여러분의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충만하시길 기도 드립니다.
 지난 한해 우리 여교역자국을 은혜가운데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 드리며
 올해도 여교역자국 여름수련회를 1박 2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정책위원장 조용묵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개회예배로 시작하여
 총회장님 그리고 고문 목사님을 강사로 모셔서 뜨거운 기도회와 석모도에서의
 친교로 영육간에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부디 여교역자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으로 영육의 회복과 힐링이 되시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살렐루!
 - 여교역자국장 한순남 목사 올림 -



정책위원장 조용묵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총회장 임웅재 목사
산정리순복음교회



고문 정부용 목사
대림엘교회



자문 신동숙 목사
순복음임마누엘교회



국장 한순남 목사
순복음반송교회

조직

임원단

차장	기획부장	홍보부장	행사부장	복지부장	선교부장	섭외부장	사회부장	찬양부장	예배부장	봉사부장	정보부장
순복음경리교회 김바울 목사	일산탄열교회 조영란 목사	회복의순복음교회 김순자 목사	예전순복음교회 최영희 목사	순복음경리교회 이경자 목사A	순복음침례교회 조은주 목사	기장순복음교회 조병희 목사	군일순복음교회 김종애 목사	복동순복음교회 백영자 목사	성광교회 최정희 목사	순복음기쁨과기쁨교회 이명순 목사	대화순복음교회 안신자 목사

전국지부장

서울중부지부장	서울중앙지부장	경기지방회 지부장	경기중앙지부장	경기남부지부장	안산시흥지부장	경기북지부장	일산지부장	김포지부장	대전지부장	충북지부장	충남지부장
시랑과평교회 홍현자 목사	예수왕기교회 정예스더 목사	온누리순복음교회 최금자 목사	행복한순복음교회 김정순 목사	사카기예심문나루교회 표한자 목사	밀음교회 이경자 목사B	중성한성교회 서석자 목사	순복음봉강교회 실수자 목사	임마누엘교회 이정애 목사	목자교회 김혜시바 목사	대성산기도원 임연임 목사	솔로몬순복음교회 권옥자 목사
청주지부장	경남지부장	영남동지부장	부산지부장	부산동지부장	전북지부장	광주지부장	호남지부장	인천지부장	은진지부장		
행복한순복음교회 김문자 목사	동명순복음교회 김덕숙 목사	순복음은혜교회 이순애 목사	하늘소망교회 김경옥 목사	순복음복있는교회 황연선 목사	순복음우리교회 이화숙 목사	순복음필교회 황희숙 목사	순복음동산교회 정복례 목사	순복음성기교회 신은혜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심연숙 전도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여교역자국

국장 한순남 목사

현 정부에 대해 순교적 각오로 저항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 통과로 대다수 국민 인권 억압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NAP)이 지난 8월 7일(수)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3차 기본계획에서 '인권존중, 평등과 차별금지, 민주적 참여'라는 기본원칙을 제시했는데 '인권존중과 평등과 차별금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심각한 독소조항과 문제가 있어 기독교계에서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그러나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NAP와 차별금지법 순교적 각오로 거부, 저항할 것을 천명한다"는 성명이 즉시 발표됐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한국기독교연합(대표회장 이동석 목사),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 전계현 목사 외),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유중현 목사)에서 공동명의로 발

표한 이 성명서에 따라 앞으로 현 정부에 대한 극렬한 저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인권을 내세우는 정부가 대다수 국민의 인권은 억압 침해하고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국가의 힘을 동원함으로써 앞으로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NAP의 핵심은 헌법에 기초한 양성평등을 무력화하고 성평등, 즉 동성애를 옹호하며 동성애자들을 정부가 나서서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건전한 성윤리와 가치를 정부가 나서서 송두리째 채 뽑아버리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으며, 장차 동성애와 동성혼까지 합법화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이라는 이

름에 저질러지는 문란한 성행위까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옹호하는 것에 대해 일체 거부한다"며 "이는 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나라가 성소수자들이 새운 나라인가, 우리는 정부가 동성애자들을 혐오하지 않는 것과 옹호하는 것의 차이를 혼동하고 있음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소수를 감싸기 위해 대다수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NAP와 차별금지 기본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일 정부가 이를 시행할 경우 한국교회는 순교적 각오로 거부하고 저항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라고 표명했다.

‘4/14 윈도우’ 어린이 선교사역, 5만 명에 복음 전파

프라미스교회, 최근 한달간 남미지역 집중 사역

미국 뉴욕주 플러싱에 있는 프라미스교회(담임 허연행 목사)가 '4/14 윈도우 어린이 선교사역'의 일환으로 지난 7월 11일 전 세계적으로 실시한 축구, 뮤지컬, 세미나, 애니메이션 등의 어린이 종합선교 사역이 큰 결실을 맺으며 종료됐다.

'4/14 윈도우 선교사역'은 축구, 뮤지컬, 영어교 육사역, 파워하우스 교회지도자 세미나 등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각국에 잠자고 있는 기성세대와 사역자들을 깨우는 일을 하고 있다. 프라미스교회의 이 같은 사역은 지난 2009년 김

남수 원로목사와 루이스 부시 박사(10/40 윈도우 주창자)의 만남에서 4세에서부터 14세까지 지구상 185억명의 어린이들의 영혼을 구원하자는 목표로 시작된 것으로 허연행 목사는 올해 담임 취임 후 처음으로 이 사역을 지휘했다.

목회자유가족돕기운동, 별세 목회자 자녀 장학금 전달

초·중·고·대학생 등 22명에게 온전한 사랑의 실천

기독교대한감리회 목회자 유가족돕기 운동본부(회장 김진호 감독)는 하반기 목회자유가족돕기 사역을 실시했다.

동 본부는 2018년 하반기 장학금 수여식을 지난 8월 10일(금)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감리교본부 16층에서 갖고, 별세 목회자 자녀(대학생 12명, 고등학생 6명, 중학생 2명, 초등학교생 2명) 22명에게 각각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선정된 학생들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시는 축복의 통로와 큰 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총무 최우성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감사예배 및 전달식에선 사무총장 권중호 목사가 "주님이 성령으로 일으켜 주고 업어주고 안아줘 학생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기도했고, 클라리넷 최지훈과 피아노 최한정의 특별한 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다. 이어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위로 쓰는 그릇'(딤후 2:15-21)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이 말씀은 '흔들리



지 말아라',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라', '더러운 것이 흔들 때 흔들리지 말아라'는 말"이라며,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자기 존재가 흔들리는 것으로, 사도님들과 아이들이 걸어가 는 길에 문제가 없는 길은 없다. 헛된 말이라든지 그릇된 진리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라. 그러면 그 속에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교국 총무직무대리 이용

윤 목사가 격려사를 전하고, 지도고문 윤연수 감독이 축사를 전했다.

또한 회장 김진호 감독이 인사말씀을 전한 뒤 학생들에게 직접 장학금을 수여하고, 김찬미 학생이 단례로 감사편지를 낭독했다.

이밖에도 예지희 회장 이정정 사모가 감사인사를 전하고, 지도고문 박정원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사설

한반도 평화는 핵 폐기가 전제되어야

북한이 쉽게 핵 야욕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은 지난 25년 동안 핵 협상 실패의 뼈저린 교훈을 통해 누구든 어렵지 않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때문에 UN을 비롯한 관련 국가들은 북한 체제가 흔들릴 정도의 제재가 있어야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공감대에 이르렀고, 중국·러시아까지 동참했던 것이다.

제재로 인한 성과가 나타나 극적으로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정상회담이 치러진 지 2개월이 됐지만 북한 핵 폐기 가능성은 아직 남아야 할 산이 꽤 남아있어 보인다. 그로테도 정부는 남북 대화와 협력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급기야 남북정상회담이 9월 중에 개최될 예정이다.

미·북 입장 차이를 조정하고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주장하지만, 지난 8개월 동안의 북한 전략을 되돌아보면 비핵화 진정성 주장을 그대로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UN과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북 경협을 통해 대북 제재가 약화하면 비핵화는 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선결되어야 할 비핵화 과제는

명확하게 하지 않고 경협만을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된다. 한반도의 평화는 무엇보다도 먼저 핵 폐기가 전제되어야 한다.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은 유엔군 종립 기반을 흔들고, 나아가 주한미군은 물론 한·미 동맹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협상은 평화를 지켜낼 수 없다. 또다시 북한의 핵 전략에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한·미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북·미가 폼페이오 방북을 앞두고 실무회담을 갖고 있기도 하다. 북한은 회담과 공영의 길을 정확히 알아내고 기대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 FVD(외교통자외)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조치로 화답하는 것이 유일한 살길이다.

이스라엘이 예리고 성을 점령할 때 하루 한 번씩 6일간 돈 후, 제7일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고 난 후, 일제히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질렀다. 그 견고한 철옹성 예리고 성이 일시에 무너져 내렸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삼상 17:47)

지리산 기독교 유적, 왜곡된 역사 바로잡다

《지리산기독교선교유적지보존연합(이사장 안금남 목사)에서는 2017년 12월 25일 전남 구례 군청에서 발행된 <과거 보려 가는 길> 사진집 내용 가운데,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사정 노력을 해 왔다.

내용 가운데, 210, 216쪽에서 '수양관'을 '별장'이라고 표기된 부분과 사진 설명에서, '향토병 읍을까봐 떨쳐감치 지어놓고, 자기네들끼리 행복을 향유한 명백한 증거'라고 적시된 부분이 지리산 기독교 유적을 폄하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었다.

구례군청서 모 군수와 작가 정 모 씨를 "사자명예훼손"으로 순천 검찰청에 고소한 바 있고, 출판물에 대해서는 '출판 금지 가처분신청' 까지 진행하였다.

또 이와 관련 기독교 연합 단체와 기관인 한기총, 한기총, 한기연과 한국교회언론회, 한국대학생 선교회 회원 2,280명, 그리고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기독교수회 회원들의 진정서가 순천 검찰청에 제출되는 등의 일련의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서 모 군수는 재임기간 만료일인 지난 6월 30일까지, 구례군청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공개하고, 기존의 배포된 책은 모두 회수하여, 올바른 내용으로 다시 인쇄해서 재배포하여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한 바 있다.

그래서 지난 6월 15일 구례군청 청사에서는 보존연합 회원들에 의해, 책 내용을 검수하는 등의 적극적인 활동과, 군청에서 이미 잘못을 시인 하였으므로, 왜곡된 역사 설명을 바로 잡는 데에 철저함을 기할 수 있었다.

보존연합은, 수십 년 동안 지리산 선교사 유적지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비방, 즉 선교사들이 노고단 수양관을 지을 때, 조선인들에게 강제노동을 시켰다거나, 이곳이 일제 식민지 잔재라는 내용에 대해서 그 부당함을 증명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였다.

보존연합은 앞으로도 희생과 사랑으로 신앙의 교훈을 가르쳐 주었던 선교사들을 본받아, 한국교회를 섬기는 일과 선교사 유적지 보존에 더욱 힘써 주기를 당부한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고문 : 정채위원장 조용목 목사
- 발행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 연 락 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영평로 22 다빌 5

●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경기남지방회 다메섹교회 ACADEMY



이원정 목사

다메섹순복음교회 담임

요한복음 5장 1-9절

낯고자 하느냐.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은 혼인잔치의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고, 두 번째 표적은 말씀을 믿고 행한 자에게 일어난 이적입니다. 세 번째 표적은 낯고자 하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말씀입니다. 표적은 사건이며 징표입니다. 생명은 오로지 말씀 안에만 있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말씀으로 네 아들이 살아났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 안의 실상입니다. 성경의 약속이 내 안에서 성취됨이 확인되어야 믿음입니다.

5장에 나타난 베데스다 연못에서 세 번째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북쪽 성벽 곳곳에 열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양문을 지나야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다섯 행각이 있고, 유대인의 유월절기에 부각이 되었습니다. 성막은 돌, 성소, 지성소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돌, 예루살렘 성, 그 안에 성전이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도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입니다. 세상 애굽에서 홍해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성안으로 들어가려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손을 씻고 솔로몬의 5개 행각(울렘에서 복음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아직 복음으로 못 들어갑니다. 연못에서는 물이 있고, 이 물은 말씀이며 베데스다는 은혜에 잠김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 치료하셨습니다.

성경에 (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에 (이)로 표기되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야 낯다고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네가 낯고자 하느냐 라고 물을 때 난데없이 물이 동할 때 나를 놓아줄 자가 없어 들어가지 못했노라 대답하였고 필자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안)에 부가 설명을 하였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온천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누가 치료받았다고 소문이 무성한 곳이었습니다. 누가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대를 하고 찾아갔습니다.

38년 된 환자는 소문에 기대어 누워있었습니다. 연못은 울렘, 규레들을 떠나지 못합니다. 연젠가, 혹시나 하는 착각만 심어줍니다. 의사들이 손을 대지 못할 지경에는 민간요법에 현혹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이란 기대고 싶은 것입니다. 베데스다 은혜의 집에 모인다는 것은 오늘날 교회가 베데스다 연못과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맛보기 위험입니다. 은혜인 베데스다 연못이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날 때 2년은 율법을 받았지만 38년을 길에서 보냈습니다. 농사도 수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만 광야에서 살아갔습니다. 초보이기에 앞으로 가지 않고 땀들기만 합니다. 여기에 모인 자들이 소경과 마친가지입니다. 절름발이요, 소경, 병든 자들이 가야 할 목표도 없이 땀도는 것입니다. 모세는 목표가 있었기에 참고 인내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성경에서 소경은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계시를 보지 못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계 3:14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희가 영적으로 가난하고 가련하기에 현실에 맞춰 살고 있다 하였습니다. 소경에게 보상은 네가 문을 열면, 네가 들어가 머물어 너를 나의 보좌에 앉게 하시며 함께 안식하신다 하였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소경입니다. 그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 복을 받을 것이라 하지만 이는 헛된 기대입니다. 멀리서 보면 소문일 뿐입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날이 안식입니다.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것이 능력입니다. 소문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안에서 성령으로 감동 될 때 물이 동하듯 아무도 없이 오로지 나만 존재합니다.

세 번째 표적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끌어내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서 능력이 폭발합니다. 말씀 안에서 안식이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만이 하나님 은혜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낯고자 하느냐 말씀 안에만 능력이 나타납니다.

세계선교연합회
청년봉사선교회

주최 '제2회 청년 IMCR 대회' 폐막

7개국 차세대 교회지도자들, 깊은 감명과 도전을 받고 사명감 충만

'제2회 청년 IMCR 대회(The 2nd Youth International Ministries and Church Revival Conference)'가 세계선교연합회와 청년봉사선교회 주최로 8월 17일(금)부터 20일(월)까지 3박 4일간 전 원성전과 안양성전 등 은혜와진리교회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열렸다.

차세대 교회지도자가 될 청년들을 대상으로 올해 두 번째 개최된 이번 대회에 호주, 캐나다, 인도, 말레이시아, 미얀마, 네팔, 페루 7개 국가에서 은혜와진리교회의 해외선교지 교회와 선교협력 교회의 청년 사역자와 리더 36명이 참가하였고, 통역 등을 맡은 청년봉사선교회 소속 자원 봉사자들이 이들과 일정을 함께하였다.

참가자들은 IMCR(세계선교와 교회부흥협의회) 총재 당회장 조용목 목사의 특강을 비롯하여 행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참석 인원과 일정을 줄여 알차게 기획되고 심도있게 진행된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말씀과 성령의 권능을 받고 교회부흥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사명감으로 충만하여졌다.

숙소인 전원성전에서 여장을 풀고 17일(금) 안양성전에서 개회식과 함께 대회의 공식 일정이 시작되었다. 국적을 초월하여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로운 시간에 이어서 개회예배가 세계선교의 원장 권영호 장로의 사회로 국가별 국기와 참가자 입장, 이웅민장 선교사(미얀마 은혜와진리교회)의 기도, 세계선교연합회 중창단 그레이스앤미션아이의 특송, 조용목 목사의 환영사와 설교, 폴 데이빗 전도사(인도 은혜와진리교회)의 감사 순서로 드러났다.

조용목 목사는 개회예배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인이자면 반드시 가져야 하고 나타내 보여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 성경적인 신앙의 원칙에 대해 말씀해 주었다.

조목사는 개회예배 후 이어진 특강에서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성령세례와 성령충만에 관한 강의를 신령한 지식을 더해 주고 성령충만하여 신령한 은사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교회의 부흥과 복음전파를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었다. 이어진 성령충만기도회에서 청년들은 성령충만을 위해, 섬기는 교회의 부흥과 속한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다.

특강과 기도회 후에는 목사 암직식이 열려 이웅민 선교사의 사모인 탬 이양 여사가 목사로 임직되었다. 임직예배에서 조용목 목사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였다.

청년들은 환영만찬에 이어 금요일예배에 참석하여 성도들로부터 뜨거운 환영을 받고,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였다.

대회 이틀째인 18일(토)에, 청년들은 서울 양화진 외국인선교사모역과 음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하여 우리 한국의 선교의 역사와 건국과 발전 과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청년들은 우리나라의 경제적 번영과 교회 부흥의 과정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알게 되고 한국 교회에 주어진 세계선교의 사명을 잘 알게 되었으며, 특히 무신론과 유물론을 바탕으로 한 공산주의 사상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기독교 신앙과 결코 병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이어서 전원성전에 돌아온 청년들은 '투호' 등 즐거운 우리 민속놀이와 야외 활동을 함께 하면서 서로 간에 우의를 다지고 친목을 도모하였다.

19일(주일)에는, 안양성전에서 주일예배에 참석하여 종일 이어지는 예배와 조용목 목사의 영력전치는 설교말씀에 크게 감동되고 GNTC-TV, 청년봉사선교회, 남성봉사연합회, 여성봉사연합회 등 여러 봉



사기관에서 청년과 평신도들이 교회와 성도를 섬겨 봉사하는 모습을 견학하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교회학교에서는 유치부 예배를 참관하고 어린이들을 축복하였다.

저녁에는 은혜와진리교회의 역사와 현황, 교회의 목표와 봉사·교육·선교 기관 및 부서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소개와 설명을 들었으며, 이어서 대회 기간 중 보고·느낀 점과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는 '간증' 시간이 전원성전에서 반듯도록 이어졌다.

대회 마지막 날인 20일(월)에는, 수원·판교·영

통·동탄성전을 방문하여 교역자와 성도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청년들과 교제를 나눴다.

이어서 저녁 월요축복기도회에 참석하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한 후에 수료식이 거행되었다. 조용목 목사는 질의·응답 시간에 차세대 교회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과 교회부흥의 비결 및 기타 다양한 질문에 답하며 복음사역자로서의 사명감과 행복감으로 충만케 해주고, 수료증서를 수여하며 격려해 주었다.

청년들은 대회에 초청하고 환대를 베풀어 준 은혜와진리교회와 성도들의 사랑에 더할 수 없이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하고, 은혜로운 설교와 강의를 해주신 교역자를 감사하며, 이번 대회에 참가한 은혜와진리교회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깨달아 알게 된 신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용기백배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복음전파의 사명을 기쁘게 감당할 것을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다.

